

역점 추진 '전남특자도' 특별지자체·특별법으로 선회

이재명 정부 '5극3특' 체제상 불가 판단
市와 광역교통·산업 등 공동 발굴·추진
에너지 인·허가권 이양 등 특례 설계도

전남도가 맞춤형 특례와 규제 완화를 위해 역점 추진해온 '전라남도특별자치도'(특자도) 설치 정책을 접고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과 '전남 에너지·해양 특화도시 특별법 제정' 추진으로 선화한 데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5극3특' 정책으로 특자도 설립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5극3특 체제 하에서 특별자치도로 가는 것이 추진하기도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자체적으로 특례와 권한을 중앙으로부터 많이 이양 받을 수 있는 '전남도 에너지·해양 특화도시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신재생에너지 인·허가권 이양, 전남 해양자원 맞춤형 특례 등 지방분권 강화를 골자로 특별법을 설계해 지역 국회의원·도의회·도민과 함께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민간 사업자 위주로 추진되는 재생에너지



김영록 전남지사가 19일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 5극3특 균형발전 전략에 발맞춘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전남 에너지 해양 특화도시 특별법 제정 노력, 석유화학 철강산업 위기 극복 등에 도정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도 제공>

지 개발 사업을 공공 주도로 재편해 에너지 기본 소득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 총 23GW 발전을 달성하고 에너지 기본 소득 1조원 시대를 연다는 구상이다.

전남도는 광주시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추진, 광역 SOC, 산업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에

나선다. 광주·전남 권역 발전 전략을 공동으로 발굴·추진, 정부로부터 권한과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광주와 전남도는 2022년 7월 상생발전위원회에서 특별지자체 설치에 합의하고 연구 과제 수행, 업무 협의, 정부 컨설팅 등을 이어왔으나 뚜렷한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지역 균형성장 정책으로 자치권한 및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 발전을 이끄는 5극3특 균형발전 전략을 핵심 국정 과제로 제시함에 따라 광주·전남 특별지자체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현재 협의 중인 시·도간 공동 의제는 광주·나주·광주·화순 간 광역철도와 광역버스 노선, 첨단바이오헬스·의료특화단지, 백신면역 특구 등 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광주와 전남도의 재정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광역철도 등 특정 사업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답을 내놓고 시·도를 설득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이 추진하는 행정 통합도 향후 재정 인센티브와 특례 규정이 많이 주어진다"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전남도와 광주시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양시원 기자>

전남 7월 수해복구비 2천804억 확정

전남도는 19일 "지난 7월16~20일 이어진 집중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총 2천804억원의 복구비가 반영된 복구계획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당시 전남지역에 내린 극한 호우로 사유시설 429억원, 공공시설 60억원 등 총 1천45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가 가장 심했던 담양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고 이어 나주시, 함평군 및 10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지역별 복구사업비는 담양 1천200억원, 나주 581억원, 함평 201억원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3개 시·군, 10개 읍·면에 대해서는 총 477억원의 국비 추가지원액이 확정됐다.

특히 개선복구 사업비로 지방하천 오레천 등 총 8건, 1천204억원이 확보됐다. 단순히 기능복구를 넘어 대규모 피해발생 지역의 근본적인 해소 위해 개선복구 사업이 중요하다는 도정 운영 방침에 따른 중앙부처 건의활동 결과다.

이번 복구계획에는 주택, 상가, 농작물 등 피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항목에 대해서 위로금 명목의 재난지원금도 추가 확정됐다.

농·산림작물의 대과대와 가축·수산물의 입식비는 기존 50%에서 100%로 지원율이 향상되고, 농·축·산림·수산시설 복구비와 농기계 피해 복구비도 향상 지원된다. <양시원 기자>

市의회 "광주 영화산업 컨트롤타워·거버넌스 구축 서둘러야"

광주영화공적기구 중간점검 토론회

지역 영화정책 한계 진단·대안 모색

광주의 영화정책이 행정 중심의 한계를 벗어나 현장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정다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복구 2)은 지난 18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광주영화공적기구 중간점검'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토론회는 지역 영화 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 중심 정책의 한계를 점검하고 부재했

던 광주의 영화영상산업 컨트롤타워의 수립과 지속 가능한 영화정책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정다은 의원이 좌장을 맡고 진모영 감독('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영화감독), 허지은 광주독립영화협회 감독, 권현준 대구영상미디어센터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이신화 광주시 콘텐츠산업과장, 김은영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영화진흥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첫 발제에 나선 진모영 감독은 영화제작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을 소개하며 공모·심사 과정의 불투명성과 전문 지원기구의 부재를 지적했다.

진 감독은 "소통과 공개, 영화영상 전담기구 설립을 통해 지역 영화산업과 광주 경제를 함께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지은 감독은 "2017년 어렵게 시작된 '광주 영화제작지원사업'이 지난 9년 간 세 차례나 운영 사무국이 바뀌며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를 겪어왔다"며 "광주 영화의 새로운 정의를 세우고 민·관 거버넌스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현준 센터장은 대구 사례를 소개하며 "민·관 협력과 거버넌스가 창작 인프라와 관객 저변 확대, 지역 영화정책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핵심"이라며 "광주도 컨트롤타워 마련과 민

·관 협력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신화 과장은 "영화제작사업 선정 과정에서 정보 공개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를 높여야겠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정다은 의원은 "지속 가능한 영화생태계 구축과 컨트롤타워 마련, 영화영상 전담기구 설립과 민·관 거버넌스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영상문화발전의 실효적 지원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 영화인들이 안심하고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변은진 기자>

"세계양궁대회 응원하고 에어팟 받자"

광주시, 온라인 홍보 캠페인

광주시는 19일 "오는 9월5일 개막하는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국민적 관심과 참여 열기를 높이기 위한 이벤트를 개최

한다"고 밝혔다.

이벤트는 대회 공식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진행하며 대회 개막 전 국민 참여를 통한 '대회 불입'을 위해 마련됐다.

대회 공식 누리집에서는 20일부터 9월4일까

지 '디데이(D-day) 응원 댓글 릴레이 이벤트'가 열린다.

대회 개막일까지 남은 일수를 활용한 응원 댓글을 작성해 참여할 수 있으며 이벤트 종료 후 에어팟, 아웃백 상품권 등을 추첨해 증정한다.

대회 공식 SNS 계정(@gwangju_2025, 인스타그램)을 통한 이벤트도 20-27일 진행된다.

대회 SNS를 팔로우한 뒤 양궁 국가대표 선수

응원 영상 게시물을 공유하거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린 후 캡처해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치킨, 커피쿠폰을 증정한다.

오프라인 홍보도 이어간다. 지난 1일 기아챔피언스필드 홍보에 이어 20일 광주FC 경기가 열리는 광주월드컵경기장 밖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대회 마스코트 '에피(E-Pea)' 인형탈 홍보를 진행한다. <변은진 기자>

62년, 당신 곁엔 MG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설렘 가득한 영화 촬영 날

스타트업 창업 날

아름이와 친구가 된 날

손님을 위해 적금 든 날

우리 아이 첫 소풍 날

응원이 필요할 때도,
새로운 시작 앞에서,
기댈 곳이 필요할 때도,

MG새마을금고는
늘 당신 곁에 있습니다.
62년의 신뢰, 앞으로도
함께합니다.

당신 곁에 함께
MG새마을금고